

IT강국의 국제표준 대응전략

“

21세기는 무한 경쟁의 시대이며 그 최전선에 IT가 있다. 어렵게 차지한 IT강국의 위치를 남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되며 우리의 부단한 기술 개발과 국제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해 IT분야의 주도권을 유지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



중앙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김준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인정하는 IT강국으로 떠오른 지도 몇 년이 지났다. CDMA 기술 도입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IT 기술은 그 후 다양한 반도체 소자에 의한 세계 시장 점유율 증대와 초대형 PDP, LCD 제조의 탁월한 능력, 그리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고급 휴대폰 등을 통해 그 우월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DMB를 중심으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블루오션의 창출로 다른 나라들의 부러움을 사는 한편 우리를 따라잡기 위한 부단한 노력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IT산업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국제표준화 분야에서도 진쟁을 방불케 하는 일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여러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엄청난 자원을 소모하면서도 국제표준 활동에 진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급박한 국제적 상황 속에서 IT강국으로 부상한 우리나라가 우리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가려면 IT 분야의 국제표준화 활동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IT 분야의 표준화 활동은 고진적이라 할 수 있는 국제기구 (ISO, IEC, ITU 등)를 중심으로 한 부분과, 참여 업체들을 주축으로 한 각종 포럼 등의 사설 기구를 통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은 국가 대표적 의미를 갖고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



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활동이 주축을 이루지만 시설 기구에서의 표준화 활동은 개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특정 회사나 소수 그룹의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유지되어 갈 것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진 국가들은 두 가지의 표준 형태를 모두 지원하면서 그 때 그 때 자국의 이익에 최선이 되는 방법들을 동원해 표준화를 진행하여 왔다. 특히 미국은 21세기 단 하나의 초강대국으로서 국제기구나 시설 기구 할 것 없이 전 분야에 걸쳐 표준화를 주도하면서 자국 산업체의 상대적 우월성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몇몇 우호적인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제 3국의 IT 분야 주도권 확보를 견제해 왔다. 미국과 영국은 역사적 배경을 통해, 미국과 캐나다는 지리적 연대를 통해, 미국과 일본은 선후 밀월 관계를 통해 서로 협조하는 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다.

다만 프랑스와 독일을 주축으로 하는 유럽의 대륙 국가들은 미국에 대해 일방적인 협조를 하는 것은 피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과거의 유럽 강국이었던 이탈리아나 러시아 등은 현재 특수한 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IT 산업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북유럽의 스웨덴, 핀란드나 스위스, 네덜란드 등도 국제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못하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유럽 대륙의 양대 축인 프랑스와 독일은 역사, 문화, 민족의 엄청난 차이로 인해 서로 완벽한 협조체계를 이루지 못해 유럽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미국-영국의 합동에 주로 당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물론 표준화 사안 별로 다양한 국가 간의 합종연

횡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위에 언급한 국가 구도에 의해 IT 국제표준화가 진행되어 온 것은 사실이며 이는 IT 분야 국제표준 활동을 주도해 온 ISO/IEC JTC 1의 구조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IT 분야의 국제표준 제정을 위해 1980년대 초에 구성된 JTC 1의 간사는 지금까지 미국의 ANSI가 맡아 오고 있으며 주요 활동은 영국, 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이 주도 해 왔다. 2000년대에 들어 우리나라도 JTC 1의 SC 간사와 의장을 맡는 등 JTC 1 내에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높여 오고 있지만, 아직은 주로 듣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프랑스, 스위스 등이 JTC 1의 야당으로서 미국에 의한 일방 독주를 견제하는 힘든 일을 담당해 왔다는 것이다.

최근 이러한 IT 국제표준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대시장 중국의 등장이다. 13억 인구를 기반으로 공산당 일당체제라는 제약을 넘어서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중국은 IT 선도국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력 있는 시장이자 동시에 부한한 잠재력을 지닌 경쟁자로 인식되고 있다. 천안문 사태 이후 민주화 바람이라는 정치적 불안이 수면 아래에 머물러 있지만 중국의 일사불란한 자본주의 도입과 시장 경제 구축 과정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으며 머지않은 장래에 미국에 필적할 유일한 국가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중국이 국제표준화 무대에, 특히 IT 분야에 발을 들여 놓은 것은 3, 4년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아직 국제표준화 추진에 걸차상 다소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ITU-T에서는 중요한 직책을 맡는 등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최근 JTC 1에서 무선 LAN 보안 표준을 놓고 중국과 미국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도 검증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보여주

는 한 가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자다가 공인하는 IT강국 대한민국
의 국제표준화 무대에서의 역할은 비교적 자명해
진다. 우선은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각종 IT 관련
기술들을 국제표준화 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사소
해 보이는 기술이라도 기업체나 연구소, 대학 등이
개발한 IT 기술은 반드시 국제 특허 취득과 국제
표준화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가능한 많은
미래의 신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기술 주도권 뿐 만
아니라 국가 리더십의 확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JTC 1 내에서의 우리나라
활동 강화이다. 우리가 IT강국이긴 하지만 지금까
지는 공중망 위주의 ITU 활동과 인터넷 기반 서비
스 등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국가 차원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JTC 1에
서 각종 기고서나 주도적인 소위원회 활동 등을 통
해 우리의 위상을 IT강국에 맞도록 급속히 증대시
켜야 한다.

이를 통해 다음 단계로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것
은 IT 분야 국제무대에서의 우리나라 위상 강화이
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와 협력
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의 구축이며 여기에 중국이
큰 힘이 될 수 있다. 중국은 국제 표준화 부대에서
자신을 지원해 줄 국가들을 필요로 하는데 위에 인
근한 미국과 그 협력국가, 특히 일본은 받을 수 없
고, 그렇다고 유럽의 나라와도 정서적으로 쉽게 접
근할 수 없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
도 확보하고 있고 역사, 지리적으로 인접한 우리나
라 외에는 진입 단계에서는 협력자를 구하기 힘들
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우선적으로 확보
하고 중간자의 입장에서 일본을 참여시켜 동북아
연대(North East Coalition)을 구축하여 IT 국제표
준 활동의 새로운 축을 형성하여야 한다. 일본과
우리의 첨단기술과 중국의 거대한 시장이 결합되
고 우리나라가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면 동북아 연대는 이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
사할 수 있다. 여기에는 기존 미국 중심의 주도 그
룹의 반발을 사지 않도록 하는 세밀한 전략 수립과
유럽, 동남아 국가 등을 우리의 우호적 세력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21세기는 무한 경쟁의 시대이며 그 최전선에 IT
가 있다. 어렵게 차지한 IT강국의 위치를 남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되며 우리의 부단한 기술 개발과
국제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해 IT분야의
주도권을 유지하고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국제표준화 부대는 이러한 길을 열어
주는 우리의 실크로드가 될 수 있고 또 되어야만
한다. **표준**

